

피복에서 파구시비하면 N 8 ~ 12 kg / 10a 에서는 출현율이 55 ~ 75 %이었으며 N 16 kg / 10a 과 20 kg 에서는 30 % 이하이었다. 출현율은 토양의 EC와 부의 상관성이 있었다.

6. P.E. 피복구에서는 무피복구에 비하여 출수가 16일 빨랐고 파종 후 40일의 초장, 엽수가 현저히 높았다.

11. 콩기계 탈곡시의 적정 종실수분함량 및 급동속도에 관한 연구

(작물시험장) 문 윤호*, 황 영현
김 석동, 홍 은희

동력탈곡기에 의한 콩탈곡시 품종간 종실크기 및 수분함량정도가 탈곡기의 급동속도 (m/sec)에 따라 종실의 손상율 및 발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숙후 경과일수에 따라 종실, 꼬투리, 줄기의 수분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며 품종간 종실, 줄기의 수분함량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꼬투리의 수분함량은 단엽콩이 높았으며 성숙후 8일이 경과하면 비슷하였다.
2. 일중시간경과에 따른 종실, 줄기, 꼬투리의 수분함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꼬투리의 수분함량은 오전 11시까지는 종실의 수분함량보다 높았으나 11시 이후에는 낮아졌다.
3. 탈곡시 급동속도가 증가할수록 종실손상산율은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대립종인 황금콩이 소립종인 단엽콩보다 종실손상율이 높았다.

4. 탈곡시 종실수분함량이 증가할수록 종실손상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며 황금콩이 단엽콩보다 높았다.
5. 발아율은 급동속도가 증가할수록 종실수분함량이 높을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품종간 차이가 없었다.
6. 기계탈곡시 탈곡기의 적정급동속도는 종실손상율이 9.6 m/sec 와
비슷하며 발아율이 9.6 m/sec 와 12.6 m/sec 의 중간인 11 m/
 sec 가 알맞았다.
7. 기계탈곡시에 적정 종실수분함량은 발아율이 가장 높고 종실손상
율이 낮은 15%가 알맞았다.

12. 울무 수집종에 대한 특성조사 및 분류

(충남대농대, 홍농육종장) 김 보경, 권 경학,
강 윤규, 이 희봉,
최 봉호, 조 용환.

울무의 육종을 위한 기본정보를 얻기 위하여 강원도를 제외한 전
국의 각 군별로 수집한 150여 재래종 울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10가지의 식물특성들을 최대치와 최소값의 분포로 보면 초장은
 130 cm 에서 245 cm , 분열수는 1 이상에서 12.5까지, 개체당 잎의 건
물중은 33 gr. 에서 98 gr. 까지, 개체당 줄기의 건물중은 30 gr. 이상에
서 230 gr. 까지, 개체당 종실수는 270립에서 2090립까지, 100립중은
 5 gr. 이상에서 25 gr. 까지, 정곡의 100립중은 4.75 gr. 에서 9.25 gr. 까
지 그리고 추정된 10 a 당 정곡수량은 100 kg 에서 800 kg 까지, 개화
기는 파종후 74일부터 99일까지 각각 분포되어 있었고, 각 수집종
들을 Single linkage cluster 분석에 의하여, 수집종들을 3-5개군으
로 분류할 수 있었다.